다산포럼

정조의 소통과 제21대 대한민국 국회

김준혁
한신대 평화교양학부교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됐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의지가 드러난 선거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하여 이번 선거에 대해 더 이상 논하지는 않겠다. 다만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번에 새로 국회의원이 된 여야 의원 모두를 위해, 정조의 소통법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지난 20대 국회가 '동물 국회'로 폄훼되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여야 간 소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찌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었겠는가? 정치를 하려면 상대방과 최소한의 소통이 있어야 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정조는 소통의 군주로 평가받는다. 백성들과 소통하기 위해 상언(上言)과 격쟁(擊錚) 제도를 운영하고, 66회의 능행차를 통해 백성들과의 직접 만남을 추진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백성들과의 만남은 물론 정치인들과의 대화 또한 중요하다. 백성들과의 소통은 큰 방향의 정책을 만드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러한 정책을 온전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야의 정치인들과 대화와 협상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조는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정치인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새로운 대안과 해결책을 찾았다.

10여 년 전 정조의 비밀 어찰이 발견되었다. 그 비밀 어찰은 적대적 관계에 있던 노론 벽파의 영수 심환지(沈煥之)에게 보낸 것이다. 노론 벽파는 정조의 부친인 사도세자를 죽인 세력들인데 그들과 정조가 소통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다. 하지만 정조는 이러한 개인적인 원한을 뒤로하고 백성들을 위한 소통에 주력했다.

정조와 심환지가 소통한 주 내용은 바로 국가 정책에 대한 부분이었다. 정조가 추진하는 개혁 정책과 관련해 자신의 반대 세력인 노론의 영수에게 사전 설명을 하며 정책 수립에 동의를 구한 것이다. 또한, 노론의 요구를 받아들여 상생할 수 있게 심환지에게 의견을 구했다. 심환지는 정조의 이 같은 진정성에 감동을 받아 정조와 정책을 협의하고 자신의 세력들에게 국왕의 정책이 타당한 정책이라고 설득하기에 이른다.

정조는 심환지에게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소론의 명문가인 심노숭의 기록을 보면 정조가 소론의 영수들과 직접 소통하며 노론과 남인들과의 정치적 협의를 부탁하였다고 한다. 국왕이 이처럼 부탁을 하며 소통을 하는데 어찌 거절할 수 있겠는가? 정조는 자신을 따르는 세력만이 아니라 자신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이들과도 소통하고 이를 통해 백성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만들고자 하였다.

정조는 신하들과 학문적 대화도 나누었지만 몸으로 대화를 하기도 했으니, 신하들과 더불어 틈만 나면 같이 활을 쏘는 또 다른 소통법이었다. 국왕과 신하들이 모두 활을 가지고 같은 공간에서 활쏘기 시합을 하면서 다양한 대화를 나누고, 건강을 이야기하고, 나랏일을 의논하였다. 활쏘기 과정에서 신하들의 성적을 모두 기록으로 남기고 그 기록지에 자신이 직접 서명함으로써 신하들에게 평생의 영광을 주었다. 그리고 늘 활쏘기 때마다 잔치를 베풀고 남은 음식을 싸서 신하들의 집으로 보내 주었다. 국왕을 감히 쳐다보기도 어려운 시절에 직접 활쏘기와 말타기를 통해 국왕과 함께하니 신하들은 국왕의 은혜에 감사하고 충성을 다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좋은 지도자의 리더십은 항상 타인들과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몸으로 부딪치며 사람들에게 기쁨을 얻게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이번 선거의 민심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난 3년간 하지 못했던 개혁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개혁에 대해 미래통합당 등 국회 내부의 반대도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밀한 소통과 화합이 진실로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조의 소통법을 배워 21대 국회에서 서로 소통함으로써 국민들을 위한 참된 정치를 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경제 이야기

조팝나무와 보릿고개

이정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한 지 벌써 3개월째다. 즐기던 체육시설도 폐쇄하고, 세미나, 포럼, 각종 모임도 연기했다.

하지만 장기간 강제 칩거에 따른 육체적 무료함이 자칫 심리적 우울감으로 감염될 수도 있고, 업무 생산성도 떨어질 거라는 자가 진단을 핑계 삼아 작은 일탈을 감행한다. 필자가 선택한 일탈은 바로 점심시간을 이용한 산책. 물론 이런 행동이 사회적 거리 두기의 취지에서 벗어나면 안될 터이니 빈틈없는 방어 기재로 보완한다.

마스크로 중무장하고, 눈빛은 행인들과의 일정 거리 유지를 위한 거리 측정용 레이더로 활용한다.

간혹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몰지각한 시민이 접근하면 잠재적인 바이러스 전파자로 인식, 자동으로 5m 이상의 원거리를 유지한다. 자주 측정하다 보니 '눈대중 레이더'의 성능이 이젠 거의 인공 지능급이다.

산책로는 주로 회사 인근의 5·18 기념공원. 격동의 70~80년대, 민주화를 위해 소중한 육신을 산화했던 선배들은 당시의 민주화운동을 밑거름으로 세계 일류 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추모의 생각도 잠시, 꽃으로 흐드러진 봄의 향연을 즐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통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심한 계절은 수많은 봄꽃으로 공원을 수놓고 시민들을 유혹한다. 봄의 전령 산수유로부터 시작하여 개나리, 벚꽃, 목련, 동백 등등.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 노랫말처럼 벚꽃이 꽃가루 되어 봄바람에 흩날릴 즈음, 바통을 이어받아 피는 꽃이 있다. 바로 최근 들어 5·18 기념공원 산책로 입구에 순백의 쌀가루 마냥 풍성하게 만개한 조팝나무다. 조팝나무는 꽃 모습이 튀긴 조밥(좁쌀밥)처럼 보인다고 해서 조팝나무라고 한다. 끼니 걱정이 많았던 가난한 선조들의 희망 섞인 이름임에 틀림없다.

개화 시기도 절묘하다. 4월 20일은 봄비가 내려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는 곡우(穀雨)인데,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곡우 즈음해서 지난해 수확한 식량이 떨어지고 보리는 여물지 않아 끼니 걱정이 많아진다. 소위 '보릿고개'가 시작되는 배고픈 시절에 야속하게도 쌀밥처럼 생긴 조팝나무 꽃이 만개하는 것이다.

뜬금없이 조팝나무가 필자의 재미없는 경제 칼럼에 왜 헤드라인으로 등장하였나? 조팝나무의 하얀 자태를 물끄러미 바라보니, 불현듯 지금의 '보릿고개 경제 상황'이 오버랩되어서이다.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특히 미국, 유럽 등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요 국에서 전례 없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도시 봉쇄, 생산 중단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동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면 경제 상황이 급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지금의 소비와 생산 절벽에 따른 '보릿고개'를 잘 넘어가기만 하면 조팝나무 꽃처럼 풍요로운 쌀밥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다.

주요 선진국뿐만 아니라, 기축 통화 국가가 아닌 우리나라조차 부작용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규모의 유동성 확대 정책을 펼치는 것도 일시적인 매출 절벽에 직면한 기업들이 보릿고개를 넘어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자는 것이다.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주린 배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힘을 내자! 우리 국민은 어느 인기 트로트 가수의 노랫말처럼 물 한 바가지로 보릿고개를 넘던 선조들의 위기 극복 DNA를 물려받지 않았는가?

5·18 공원에 활짝 핀 조팝나무여, 보릿고개가 시작되는 곡우(穀雨)에 꽃이 피는 너에겐 다 계획이 있었구나!

기 고

코로나19와 지구의 날

윤희철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도시·지역개발학 박사

오는 4월 22일은 '지구의 날' 50주년이다. 1969년 1월 28일 캘리포니아 앞바다의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다. 환경 파괴의 실체를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이 날을 만들었다. 순수한 시민운동으로 시작했던 지구의 날이 수많은 국가, 전 세계 거의 모든 도시가 참여하면서 매년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우리 지구인들의 축제가 되고 있다. 50주년을 맞은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그 의미가 특별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함께 모여 지구의 날 행사를 치룰 수 없게 되었다. 모두가 힘들어 하는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뭔가를 하기 어렵다.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 국가가 모여 매년 기후 변화 회의를 하고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토로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 늘었다. 북극과 남극의 빙산이 녹아 해수면이 상승한다. 최근에는 서아프리카 국가들이 해수면 상승으로 재해를 겪으며 고통받고 있다. 심지어 몰래 프레온 가스를 배출하는 국가들로 인해 북극의 오존층이 뚫리는 대형 사고마저 발생했다. 당장의 이익과 끊임없는 인간의 욕심이 우리 지구를 지속 불가능한 세상으로 만들고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를 폭탄처럼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를 일으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위기와 씨름 중이다. 코로나19가 인간의 활동을 멈추게 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처럼 현실은 팍팍하고 답답하지만,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 19로 심각한 타격을 받아 봉쇄 정책을 폈던 곳에서 대기질이 개선되는 기막힌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중국의 대기질 개선과 함께 그 영향을 일부 받는 우리나라는 올해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인 날이 딱 이틀에 그쳤다. 비슷한 현상은 교통 체증과 최악의 대기질로 고통받는 인도와 멕시코의 도시에도 나타난다. 유럽에서 최악의 피해를 받은 이탈리아도 전국에 이동 제한령이 내려지자 맑은 하늘이 곧바로 나타났다. 전 세계 모든 도시에서 벌어지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대기질뿐만 아니다. 경제 성장과 기후 위기를 함께 생각하게 만드는 자료도 나온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1.5%에 못 미칠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과 함께 탄소 배출량도 1.2%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물론 이 수치의 변화에 기뻐할 일은 아니다. 과거 금융 위기 당시에도 몇 년 동안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늦췄다. 경제 활동이 침체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고작 몇 년 늦췄을 뿐이다. 경제 성장을 회복시키려는 전 세계의 엄청난 개발 정책이 온실가스 증가세를 한층 올렸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모든 노력을 다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석탄과 석유와 같은 화석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나 홀로 승용차'를 버리고, 걷기, 자전거, 대중교통과 같은 생태 교통 수단을 적극 이용해야 한다. 1주일에 하루는 채식으로 먹거리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식생활 전환도 필요하다.

얼마 전 지구의 날 기념 광주행사위원회는 올해 지구의 날은 하반기에 할 계획이라 발표했다. 지난 수십 년간 매년 광주 곳곳에서 4월에 치렀던 기념행사가 처음으로 연기됐다. 하지만 4월 한 달간 모두가 함께 온라인에서 지구의 날을 기억하고 기후 위기 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은 계속될 것이다. 22일에는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소수라도 모여 마스크를 쓰고 지구의 날을 함께 기념하기로 했다.

"신은 항상 용서하고, 인간은 때때로 용서하지만, 자연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환경 문제가 인류의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한 말이다. 지구 환경의 보호는 누군가 해 주는 것이 아니다. 코로나19 로 인해 역설적으로 인류는 지구에 살기 위한 최소한의 자세가 무엇인지 깨닫고 있다. 이번 지구의 날은 과연 우리 스스로의 욕망에 갇혀 살면서 미래를 지울 것인지, 아니면 아이들과 우리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열어 둘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한다. 지속 가능한 지구는 광주 공동체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기 때문이다.

社說

'광주형 일자리 정상화' 당신들이 할 일이다

4·15 총선에서 당선된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광주형 일자리' 정상화가 꼽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의 국정 과제임에도 노동계의 불참 선언으로 좌초 위기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광주 지역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여덟 명이 첫 공식 일정으로 그제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를 선언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와 간담회를 연 것은 잘한 일이었다. 하지만 노동계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 내기엔 역부족이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은 "노사 화합의 전제는 노동 존중이고, 노동이 존중받기 위해선 경영진의 마인드나 시스템 등이 있어야 한다"며 "문제점과 대안을 허심탄회하게 말해 주면 최선을 다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은 "광주시와 현대차가 협약을 먼저 파기했다"면서 "2년 뒤 공장 완공 후 매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시민에게 지탄받느니 차라리 지금 멈추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더욱이 사업주인 (주)광주글로벌모터스 주주들마저 오는 29일까지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이행과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 노사 간 '치킨 게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의 힘만으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만큼 정부와 민주당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의 차질 없는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유권자들은 그 약속을 믿고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계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게 급선무다. 노동이사제 등 노사 간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대안을 이끌어 내는 등 당선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

거리 두기 완화했지만 일상 복귀는 시기상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린이날인 다음달 5일까지 연장 시행되지만 강도는 낮춰진다. 민간시설은 방역 수칙을 지키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 현재 방역 지침 준수 명령을 유지하되 운영 중단 강력 권고는 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수준의 안정적 관리가 이어진다면 5월6일부터는 일상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크게 줄어든 것을 반영한 결정이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위험을 낮추기 위한 세심한 방역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연한 말이다. 이달 말부터 내달 초까지 이른바 '황금연휴'를 앞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자칫 코로나19가 재확산할 수 있다. 따라서 방역의 끈은 계속 조여야만 한다.

물론 어제부로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4개월째로 접어든 만큼 경기침체가 심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일상의 피로감을 호소하는 개개인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를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는 신호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빠르게 빈틈을 파고들 수 있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이며, 언제 2차 감염 폭발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 위세가 수그러드는 듯했던 중국에서도 최근 무증상 감염이 두 자릿수로 발생하고 있다.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당분간은 우리 모두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無等鼓

국회로 간 동물

국회 회의장에 간혹 동물이 등장해 눈길을 끈 적이 있다. 동물을 데려온 국회의원들은 갖가지 명분을 내세웠지만, 시선을 끌기 위한 정치 쇼라는 비판이 많았다.

2010년 환경부 국감 때는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야생동물 불법 포획 문제를 지적하겠다며 토종 구렁이를 가져왔다. 당시 이만의 환경부장관이 '어떻게 뱀을 가지고 오셨는지 걱정'이라고 하자 차 의원은 "1000만 원 짜리 구렁이 잡다 걸려서 100만 원 벌금이면 저도 잡겠다"고 했다.

그해 서울시 국감에선 민주당 이윤석 의원이 낙지의 중금속 오염 문제를 거론하며 무안에서 산낙지를 공수해 왔다. 낙지 머리가 카드뮴에 오염됐다는 서울시의 발표에 판로가 막히자 항의 차원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시식회를 열기도 했다. 2014년에는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이 환경부 국감에 '괴물 쥐'로 불리는 뉴트리아를 가지고 왔지만 국회 파행으로 회의장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12시간 이상 굶으면 죽을 가능성이 있다며 보좌진이 뉴트리아에게 포도를 주는 촌극이 빚어졌다.

2018년에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동물원 퓨마 탈출 사건을 언급하기 위해 벵갈고양이를 반입했다. 김 의원은 사살된 퓨마와 비슷한 것을 가져오고 싶었다며 벵갈고양이를 등장시켜 언론의 주목은 받았지만 동물 학대라는 비난을 샀다. 동물의 저주인지 이들 의원들은 이후 모두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소품으로 등장하는 동물과 달리 실제 절실히 필요한 데도 정작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그동안 국회에 들어올 수 없었다. 2004년 시각장애인 최초로 당선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안내견 출입 불허 조치로 보좌진의 도움을 받아 본회의장에 들어가야 했다. 국회법에는 안내견 출입 불가 규정은 없지만 국회는 관행상 출입을 불허해 왔다.

이번에 미래한국당 김예지 당선자의 안내견 '조이'가 국회에 입성하는 첫 견공이 될 것 같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조이의 국회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국회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내견 국회 출입으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산다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 /장필수 제2사회부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